

연기자 박훈(38)과 민진웅(33)은 데뷔 초반 대학로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다 TV와 스크린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흥행한 tvN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도 나란히 출연했다. 언젠가는 지금의 위치에 설 것이라고 기대는 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자리를 잡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박훈은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다"고, 민진웅은 "10년이나 빨리 찾아왔다"고 놀라워한다. 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두 사람이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명품 조연 박훈 >>>

“연기,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다른 출연자들 연기도 눈에 들어와
아직은 담금질이 더 필요한 애송이

박훈은 “가뭇던 호흡이 조금씩 찾아들면서 평정심을 찾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최고의 화제작 KBS 2TV '태양의 후예' 속 송중기의 부하 최 중사 역으로 드라마를 처음 경험한 그는 이후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10년 이상 몸담았던 연극 무대를 떠나 “무지에서 나오는 용감함”을 무기로 TV 환경에 적응해왔다.

“매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파급력을 몰랐다. 연기 못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더라. 연극은 언젠가 기억에서 잊혀지지만 드라마는 영상으로 누군가의 컴퓨터에 남는다. 찾아가서 지워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하!”

박훈은 '태양의 후예'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사이, 드라마 '투깝스' '맨몸의 소방관' 등과 영화 '골든슬럼버' '김사외전'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맡으며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왔다.

특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통해서

는 연극에서 주로 해온 대사 없애는 작업으로 큰 효과를 봤다. 극중 게임 속 NPC (플레이어가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라는 설정에 따라 현빈과 마주하는 장면에서 대사보다는 눈빛으로 감정을 교환했다. 눈빛 연기가 안방극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다.

박훈은 “이 시장(연예계)을 이제야 좀 알 것 같다”며 “이전까지 제 것만 하느라 주변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출연자의 연기가 눈에 들어오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더니 곧장 “아직은 담금질이 더 필요한 애송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래도 꿈꿔온 일이 현실에서 이뤄진 것에 대한 흥분을 지울 수 없다. “말은 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다”는 그는 지나온 시간에 겪은 경제적 아쉬움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며 웃었다.

“언제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왔다. 부모님께 많은 용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 정도는 됐다. 하하!”

박훈의 다음 무대는 2월 11일 첫 방송하는 SBS 사극 '해치'이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촬영 중에 일찌감치 출연을 결정 한 그는 무술 실력이 뛰어난 광대 역을 맡는다. 다들 어지르지 않은 거친 매력을 발산할 기세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이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여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언제나 바라봐주는 아내가 있어 든든하다. 박훈은 오랜 교제 끝에 2017년 10월 연극배우 박민정과 결혼했다.

“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도 좋지만,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제가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지적이 많다. 그 첫 번째 목소리가 바로 아내에게서 나온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박훈 ▲1981년 4월 27일생 ▲2007년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형제는 용감했다' 등 출연 ▲2012년 연극 '모범생들' '늘근도둑 이야기' '유도소년' 등 참여 ▲2016년 '태양의 후예'로 드라마 첫 도전 ▲2017년 '맨몸의 소방관' '투깝스' 등 ▲2월 SBS 사극 '해치' 출연



▶눈빛 연기 하나만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연기자 박훈.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감초 연기 민진웅 >>>

“이 얼굴도 통하는 세상 됐죠”

7개월 촬영, 두 달 만에 끝나 아쉬워
10년이나 일찍 드라마·영화 꿈 이뤄



▶현빈과 '브로맨스' 연기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 연기자 민진웅. 김충원 기자 won@donga.com

민진웅은 “많은 온 줄 알았는데 아직 갈 길이 9만리다”라고 했다. 그래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통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가야 할 거리를 조금 좁히지 않았을까. 자신이 맡은 인물이 게임 속 NPC가 됐을 때 행동과 표정 변화의 지점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지만,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연기 세계를 경험했다.

“7개월 동안 찍었는데 두 달 만에 끝나 아쉬웠다. 청소년 시절 했던 게임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연기했다. 제가 찍은 영상에 컴퓨터그래픽과 음향이 입혀져 완성된 것을 '본방'으로 보는 건 시청자가 된 것처럼 즐거웠다. 두 달이 정말 후딱 지나갔다.”

2014년 영화 '패션왕'으로

데뷔한 그는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웃음을 주는 감초 역할을 주로 해왔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도 현빈의 비서 역을 맡아 끈끈한 '브로맨스'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상계동 꽃미남'이라는 대사까지 넉살 좋게 소화했다.

지금은 물 흐르듯 순탄하게 활동 중이지만 연기하는 '20대 민진웅'은 한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여긴 적도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서른 살부터 연극에 온 열정을 쏟으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40대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계획보다 10년이나 빨리 이뤄졌다. 20대 때만 해도 목표는 드라마와 영화 출연이 끝인 줄 알았다. 하다보니 갈 길이 멀다. 하고 싶은 작품, 만나고 싶은 감독과 작가, 선배들이 너무 많다.”

그 과정에서 만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그는 “적당히 괜찮다”는 중저음 목소리의 매력로 뽐냈다.

“(얼굴을 가리키며)이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도 이해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다. 하하! 남들보다 잘 나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면 겸손함으로도 보이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다져가는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그는 “앞으로 스스로에게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않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진짜 쉽지 않다”며 웃는다.

연기할 때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는 때로 '대학로 프리덤'을 즐길 줄도 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큼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다. 혼자

고깃집에 가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노래 부르는 것은 기본이다. 떡볶이를 사서 동네 놀이터에서 먹기도 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왔다. 당구장과 만화방에 가면 기본적으로 짜장면을 시킨다. 술을 워낙 좋아해 편의점에 자주 가다보면 사장님과 친해지는 재미도 있다. 사장님한테 메뉴 추천받고,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을 받기도 한다. 하하!”

백슬미 기자

민진웅 ▲1986년 8월 22일생 ▲201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졸업 ▲2014년 영화 '패션왕'으로 데뷔 ▲드라마 '혼술남녀' '아버지가 이상해' '저글러스' 등에서 주·조연 활약 ▲영화 '검은 사제들' '동주' '박열' '말모이' 등 참여 ▲2017년 연극 '밀레니엄 소년단' 출연

연예뉴스 HOT 5

'열애설' 손예진, SNS로 근황 공개



배우 손예진(37)이 동갑내기 현빈과 열애설에 휘말린 뒤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해 시선을 끈다. 손예진은 27일 자신의 SNS에 해외에서 촬영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손예진은 재킷에 선글라스를 쓰고 가로수 아래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손예진은 현빈과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후 손예진이 SNS로 근황을 공개함으로써 열애설에 대한 부인을 넘어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이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이 개봉 당일 223개 스크린에서 9만 9623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투어 출발점인 서울 콘서트의 실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개봉해 200만 관객을 동원한 '번 더 스테이지: 더 무비'에 이어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이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이 개봉 당일 223개 스크린에서 9만 9623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투어 출발점인 서울 콘서트의 실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개봉해 200만 관객을 동원한 '번 더 스테이지: 더 무비'에 이어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SBS 인기 예능프로그램 '러닝맨'이 올해 첫 해외 팬미팅 아시아투어를 시작한다. SBS에 따르면 2월 2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리는 아시아투어는 멤버 전원들이 참석한다. 2017년 개최한 홍콩 투어는 유재석이 스케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많은 현지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번엔 유재석의 참석은 물론 전소민, 양세찬도 합류하여 중국어권 팬들과 만난다.



공개 연애 중인 가수 현아와 이던이 싸이가 설립한 신생 연예기획사 피네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싸이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아와 이던,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관련 사실을 알렸다. 현아와 이던은 전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교제 사실을 인정 후 각종 논란 등으로 회사와 결별했다. 두 사람은 각각 연예기획사를 찾다 싸이의 제의로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됐다. 현아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결혼 6년 만에 딸을 얻었다. 박진영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침 10시 조금 넘어 딸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어제부터 잠을 못 자 목소리가 엉망이지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다. 세상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과 나누고 싶다”며 자작곡 ‘꼭 잡은 이 손’을 공개했다. 박진영은 2013년 10월 아홉 살 연하 부인과 결혼했다.